

# 현장 예찰·안부 체크...해남군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 TF팀 구성하고 종합대책 운영 경로당 등 576개소 쉼터 지정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수시 방문

해남군이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영농현장, 야외근로자, 취약계층 등 현장중심 예찰에 주력하며 폭염대응종합대책을 운영한다.

해남군은 유례없는 장마에 이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7월말 장마가 끝나고, 곧바로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본격화하고, 폭염대응TF를 통해 분야별 예방대책을 추진

하고 있다. 폭염대응 상황관리는 논밭 작업자와 야외근로자, 취약계층 등 3대 취약분야 보호대책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농어촌 영농현장은 온열질환 등으로 폭염 피해가 가장 빈발하는 곳으로 폭염특보시 마을 이장과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하루 두차례 이상 현장중심 예찰과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마을내 경로당 등 시설 576개소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9월까지 운영된다. 무더위 쉼터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시설 등이 마련돼 있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과 농·임업 영농작업장, 비닐하우스 등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해 물과 그늘, 휴식 등 예방활동을 집중 홍보하고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시간 제공 등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재난도우미가 수시로 전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냉방 물품지원 등 관계기관 협업체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폭염 특보 발효시 폭염대책반과 관련 부서, 읍면에서 일일 상황보고를 통해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무더위 쉼터 운영 외에도 주요 횡단보도에 그늘막 29개소를 설치하고, 관광지 등에도 콜링포그 8개소를 운영하는 등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했으며, 수시로 도심 살수차 운영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 폭염 기간이 평년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지역 여성 어업인들이 특화 건강검진을 받은 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을 배우고 있다.

## 신안 햇빛연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전국 첫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5개 지역 주민에 84억원 배당금

신안군은 최근 열린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순천대학교에서 열렸다.

신안군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햇빛, 바람, 바다가 주는 평생연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021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좌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을 나눠주는 제도이다.

올해까지 안좌·자라·임자·지도·사육도 등 5개 지역 주민에게 총 84억원의 배당금을 나눠줬다.

올해 5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2249명에게 '햇빛 아동수당'을 해마다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개발이익 공유제를 시행한 이후 햇빛연금 지급 지역은 인구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신안군은 이 공약사업으로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55개 기초자치단체가 364개



최근 열린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희웅(오른쪽)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 팀장이 심사위원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사례(7대 분야)를 제출했다. 2차 현장 발표심사에서 92개(최우수 43개·우수 49개)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신안군은 지난 4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실시한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A

등급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민과의 공적 계약인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구감소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se@kwangju.co.kr

## 서해해경청, 찾아가는 어선 안전점검 서비스

### 냉각수·화재탐지기 작동 등 점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해역 선박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어선 안전점검 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어선 화재 사고

분석 결과 정비 불량과 화기취급 부주의가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합정정비지원팀이 지자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과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합정정비지원팀은 목포·여수·완도 등 관할 파출

소와 협의해 화재에 취약한FRP 소재, 20년 이상의 노후 어선 등을 선별한 후 냉각수 및 윤활유 관리, 배전반 내 주요 부품·선내 화재탐지기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막고, 어업인 인식 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안전점검 서비스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전남형 목포청년공동체' 출범...13개팀 공모 선발

### 원도심 활성화·미용 봉사 등 활동 목포시 멘토단·전문 컨설팅 지원

목포시는 최근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에서 '2023년 전남형 목포 청년 공동체' 출범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청년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13개팀을 공개 모집해 선발했다.

출범식에서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청년활동가 홍동우 대표와 함께 선발된 청년공동체 13개팀이 모여 공동체간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각자의 포부를 다지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청년공동체 13개팀은 원도심 활성화, 시민들을 위한 연주공연, 미용 봉사, 공예 네트워크 활성화, 쓰레기 정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 된다.

시는 청년·일자리 통합센터와 함께 멘토단 구성 및 운영, 청년공동체별 전문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진행함으로써 청년공동체 활동을 펼쳐가는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 의지를 높이고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전남형 목포 청년 공동체'에 선정된 13개 공동체가 최근 출범식을 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또 청년공동체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청년공동체 청년들이 지역

에서 활동 기반을 마련해 지역에 정착하고 공동체 활동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완도군 여성 어업인 462명 특화 건강검진

### 비용 20만원 90% 국비 지원

완도군이 오는 10월까지 여성 어업인 462명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완도군은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건강검진을 벌인다.

이 사업은 맨손 어업과 쪼그려 앉는 작업이 많은 여성 어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지난 2018년 6월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사업이다.

대상은 완도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여성 어업인 462명이다. 완도 검진 대상은 전국(1800명)의 25.7% 비중을 차지한다.

건강검진 비용은 20만원으로, 국비 90%가 지원

된다.

검진 대상자는 완도지역 지정 의료기관은 대성병원을 찾으면 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 위험, 심혈관계 질환, 난청 등 총 4개 영역 11개 항목이다. 이곳에서는 질병 사후 관리와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전문의 상담도 진행된다.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정책에 따라 여성 어업인에 대한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어업활동 지원사업'도 받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일반 국가 검진에는 없는 여성 어업인 맞춤형 건강검진이 어직업으로 인한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강검진과 예방·치료 등 여성 어업인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김산 무안군수가 지난 1일 무안을 불무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찾아 안전 상황을 살피고 있다.

## 무안읍 불무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인기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불무공원 물놀이시설이 어린이 가족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불무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비 오는 날을 빼고, 평일 오전 11시~오후 5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한다.

11세 이하 어린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물놀이장은 조합놀이대와 바닥분수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췄다. 탈의실과 비상 구급함도

이용할 수 있으며, 폭염 기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무더위 울타겔'도 운영되고 있다.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은 생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1일 불무공원을 찾아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직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진민 기자 jun@

## 영광군 9월 한 달간 섬 주민 택배비 지원

영광군이 추석 명절이 있는 9월 한 달 동안 낙월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배요금을 지원한다.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받을 때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내었다.

영광군은 '섬 지역 생활 물류(택배비) 운임지원 사업'을 진행해 추가 택배 운임이 부과되는 섬 주민(19세 이상)을 대상으로 9월1~30일 추가 배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영광 섬 지역에 사는 주민은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 사무소를 찾아 택배 이용정보를 제시하면 영광군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해양수산과(061-350-5422)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영암군보건소 '행복한 임신과 출산교실' 참여자 모집

영암군 보건소는 오는 18일까지 2기 '행복한 임신과 출산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임신·출산교실은 오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4회 운영한다. 이 교육에서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태아와 엄마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출산도움 요가와 모유 수유방법 교육·실습, 모유양 향상·젖물살 예방 마사지 등이 진행된다.

영암지역 임신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

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수마다 최대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보건(지)소(061-470-6538)에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실은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초보 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